

北, 개성공단 통행금지... 남측 귀환만 허용

일부 귀환에도 828명 체류... 정부 신변안전 만전

서면 주한美 사령관 "한반도 매우 위험한 상황"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위협 나흘만인 3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인력의 남측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회를 통해 통행금지 방침을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못 오고, 나가는 것(남측으로의 귀환)은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일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통행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허용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50분 3명의 우리 측 인력이 귀환한 것을 포함, 이날 총 33명과 차량 23대가 남측으로 돌아왔다.

이날 통행이 끝난 오후 6시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828명(외국인 7명 제외)이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측 인력 484명은 오전 일찍부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나와 3~4시간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통일부는 현지 체류인원의 전원 귀환 여부에 대해 "입주기업과 협의하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변안전 우려 시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체류인원의 전원 귀환을 권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으로 남측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차단됨에 따라 조업 차질을 막기 위해 입주기업들은 이날 남측으로 귀환하려던 인원 규모를 대폭 축

소했다. 당초 북측의 통행금지 통보가 있기 전 현지에 체류 중인 446명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입주기업들의 계획 변경으로 33명만 귀환했다.

남측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면 조업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한 3일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가 부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근로자의 남측 귀환만 허용하고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통일부와외의 접촉에서 현지 체류에 필수적인 식자재 공급과 완제품의 반출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임스 서면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미국시간)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고 휘발성이 강한(dangerous and volatile)' 상태라면서 지금 가장 우려스런 대목은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측의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사령관은 이날 관문점에서 미 ABC 방송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긴장이 고조됐던 적은 없었고, 총동적인 결정은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합뉴스

북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시 구출 계획 있나

국지도발 유형 상정 군사작전도 가능

개성공단에 현재 체류중인 우리 근로자 다수를 북한이 억류했을 때 정부의 대책이 관심이다. 정부는 일단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제 압박에 나설 계획이나 개성공단에서의 대규모 인질 사태 발생시 군사작전을 통한 구출계획도 마련,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 안보전략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민간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시 군사조치를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하는 사태를 국지도발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날 22일 발효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국지도발의 유형으로 개성공단 억류사태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미군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성됐기 때문에 유사시 군사작전 때 미군 전력도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파치 헬기(AH-64D)와 특수 작전용 헬기(MH-47·MH-60) 등 미군 전력의 지원을 받아 한미 연합작전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반도 긴장완화, 대북 정치력 발휘해야"

민주당은 3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서정성 대변인 명의로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은 현재 모든 군사적 행동과 함께 남북한 핫라인을 끊고 유일한 통도인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최대한의 대북라인 정치력을 복원

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며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을 기초로 남북관계 정상화 회복을 위한 대북 정치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총리 "제주 4·3사건 추념일 지정 추진"

정총리 국무총리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 65주년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4·3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4·3사건을 추모하

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제주를 방문해 "4·3 추모 기념일 지정을 포함해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前 기초단체장협의회

전국의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선 전(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라"고 촉구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천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속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년까지 4만9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75개 시책 추진

광주시는 "일자리와 건강, 주거, 문화, 인권 등 5대 영역에서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75개 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일자리 행복복지 정책과 관련해 내년까지 4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5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또 건강시책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요서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악취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특히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6년까지 10.5%로 확대하고, 시설장애인의 주거자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

업 확대와 공폐가를 이용한 공동체 공간도 조성한다. 문화시책으로는 시민들이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500개를 확충해 복지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주민자치형 마을공동체 8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 인권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100개 인권지표 실천 ▲인권윤리코드 제도 도입 ▲인권 모니터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폭력 격정 없는 지역 안전망 구축, 무등산 119 산악구조대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RDF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보다 세밀한 검토와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상정 보류했다"며 "지역주민과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RDF사업과 관련해 남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주민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 미흡 ▲주민피해 대책 ▲제3섹터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 ▲사업성 등 각종 문제를 제기해오며 이에 대한

'RDF 사업자공모안' 본회의 상정 보류

광주시의회, 남구주민 반발 감안한 듯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RDF(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의 광주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3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정병문)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RDF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보다 세밀한 검토와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상정 보류했다"며 "지역주민과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RDF사업과 관련해 남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주민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 미흡 ▲주민피해 대책 ▲제3섹터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 ▲사업성 등 각종 문제를 제기해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제216회 임시회 회기 내에 계류된 안전 처리 일정을 잡기로 했으나 필요할 경우 다음 회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병문 위원장은 "RDF사업이 민감한 문제인 만큼 면밀한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며 "지역주민과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RDF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45%를 민간투자로 공모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나머지 50%는 국비, 5%는 광주시 출자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광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1일 800t의 생활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RDF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마찰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 광산구 산정동
- 면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리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 (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관광 용도 : 화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카페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림하우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워라시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최고의 전원주택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계획관리지역 남향에 도로, 전기시설 집 전 2,400㎡ 정남향에 조망권 좋고 마을과 약간 떨어진 입지조건 최고!! 매가 7,200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지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정(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취폐(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 및 시외순원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물분과 원스톱 서비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영천 신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